

대한공민우종매국중합

日五廿月十年三廿國民

호일五廿월十年三廿國民한대

일六초 월九 년사신 력흥

報週洋平太

KOREAN PACIFIC WEEKLY

Y. K. Kim, Editor

SERIES 28 VOL. 12 NO. 499 OCT. 25 1941

931 N. King St., Honolulu, T. H.

Published and Owned by Dongji Hol

Subscription Rates: \$4.00 Per Year; 10 Cents Per Copy

감하선딕금필

국방으로 천백불정액이 임청나계 올라서 월급생활하는 사람은 중급을 요구해야 몇천원씩 월급이 올라야 본사지역은 빛이 나볼정에 생활비가 턱부족하게 되월급중을 여달라고 청도못올형세라 국방공사 한주일봉전은 사원의 한달월급에 불과하나 걸으지 안코 저출생이 본사의 직책이오 한번독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보대금청구서를 거원에 발송하였드니 애그른사업가주영한씨는 주보대금 4천원의외에 2천원을더보던면서이물주보발간에 보통하라고 우리는거주에 국자를바미고 참한국독립군이되기로합시다 하였습니다가주오리들이 피원농주 김형순씨는 명년대금까지 합해서 8천을 보던면서 시국이다사환이때에 더평양주보발전을 앙숙하노라 하였습니다

다리고마음일이외다 대금청구서받고 아주 미남한신독자들은 사정보아 대금을좀보내시오 명년처조회를주관하는데 불소준제정이 불게되니 설각잔하소서 오죽답답히서야 이런사정을 잊을나구 하시고 대금을 꼭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평양주보사

Entered as second-class mail matter, April 29, 1930
 at the post office in Honolulu, Hawaii, under
 the Act of March 3rd, 1879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大平洋報
 KOREAN PACIFIC WEEKLY
 PUBLISHED FOR THE PROPRIETOR
 BY THE KOREAN PRESS CO.
 100 N. BROADWAY, NEW YORK, N. Y.
 1911

사설



모스크가 함대 7면

히틀러의 최후작전은 모스크 함락인데 그는 말하기를 소련령도 도시를 함락은 안이오 다만 소련 군대밖엔 을 후덕함이 라 하였다. 1월 16일까지 발포된 뒤 섬보 도를 취락은 진된 뒤 국은 세 방면으로 모스크를 조려서 들어간다. 전 필승을 필취가 만약 모스크를 점령한다면 영.미.중.소의 대덕급 동맹형세가 엇더케 전개될는지 미국이 모스크맹선이 현상대로 진보되면 소련의 40의 선군수품 계조선출도시가 식군수에 들면 스텔린은 적도 없다. 함덕함수 및 개입도다.

리평양주보

화를 당하리라 할 것이다. 소련이 구라파령도를 다 빼앗기고 동편으로 들어가며 함덕전을 계속 할 터인데 미국이 서로 평화치안을 것이며 히틀러는 모스크를 차지하고 난 뒤 도발수업고 다면 전선만 더 확대함이오 미국의 청영금부치는 외잔중에서 적어도 반년 세월을 가져야 후신허가 지고 영본도공습을 시험할 것이다. 그럼으로 영본도침략위기는 모스크함락의 큰영향은 맞지 않는다.

나련함국의 맹진형제의 정인상타격을 줄 것이다. 물론 모스크 함락에 미국 학전 추진성이 외이니 이는 미국이 영국을 대서양회 제 1방이 섬으로 인종중부 야 즉점영국측에서 함덕전을 도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립법을 폐지 후개정해야 하고 상선을 무장하며 표적형로에 군수품을 운송할 터이며 그 뒤 된다면 미국 선박이 미국 잔해형과 함공습격을 당함으로 피치못하게 개편케 될 터이다. 미국이 구라파 점정에 살아 들면 전점이 3년은 더 갈 것이다.

세사저도 일본형제이니 일본은 미국과 국교를 조정 할라고 애를 쓰다가 미국이 중시 양보치안으며 오히려

동양세력. 중. 할. 삼. 국. 파. 합. 작. 하. 야. 근. 사. 준. 비. 를. 강. 화. 하. 는. 공. 시. 에. 근. 수. 품. 을. 중. 경. 에. 급. 피. 하. 야. 대. 일. 공. 격. 을. 추. 진. 하. 리. 다. 일. 본. 은. 이. 때. 서. 저. 소. 련. 공. 격. 을. 영. 보. 아. 서. 백. 리. 아. 습. 격. 을. 개. 회. 하. 였. 는. 바. 모. 스. 크. 가. 동. 맹. 구. 협. 에. 서. 러. 지. 면. 일. 본. 이. 복. 진. 영. 습. 하. 는. 지. 두. 고. 을. 만. 하. 도. 다. 10월 16일. 에. 고. 노. 에. 가. 너. 각. 조. 직. 한. 지. 3. 식. 안. 제. 또. 총. 사. 직. 하. 였. 스. 매. 그. 리. 유. 는. 일. 본. 이. 영. 미. 퍼. 협. 정. 을. 아. 조. 폐. 지. 하. 고. 동. 망. 간. 에. 동. 영. 청. 약. 칙. 을. 실. 현. 키. 도. 근. 벌. 너. 각. 이. 동. 단. 함. 이. 라. 미. 국. 을. 일. 여. 서. 경. 제. 봉. 쇠. 를. 완. 화. 요. 구. 하. 다. 가. 설. 파. 된. 림. 시. 하. 야. 모. 스. 크. 가. 히. 들. 리. 에. 재. 종. 경. 치. 년. 산. 서. 비. 티. 아. 공. 습. 을. 위. 협. 하. 야. 가. 지. 고. 미. 국. 을. 또. 일. 너. 대. 근. 예. 선. 일. 다. 일. 본. 제. 조. 직. 이. 쇠. 약. 하. 여. 저. 서. 모. 스. 크. 가. 합. 락. 된. 대. 도. 일. 본. 이. 북. 방. 에. 전. 선. 을. 련. 정. 할. 수. 업. 는. 사. 정. 일. 다. 일. 본. 이. 습. 격. 의. 대. 일. 공. 격. 을. 당. 하. 며. 남. 방. 에. 서. 설. 라. 불. 침. 삼. 키. 는. 관. 제. 포. 련. 사. 단. 을. 공. 습. 도. 생. 의. 가. 안. 단. 다.

일. 본. 은. 항. 공. 습. 격. 을. 바. 어. 하. 기. 도. 대. 도. 시. 에. 는. 공. 습. 피. 란. 을. 조. 련. 식. 하. 며. 정. 부. 는. 광. 석. 을. 저. 장. 하. 야. 전. 란. 민. 을. 맥. 어. 살. 이. 겠. 노. 라. 하. 였. 다. 그. 것. 이. 다. 서. 비. 티. 아. 칠. 정. 처. 림. 소. 동.

하. 지. 만. 은. 너. 뎨. 으. 로. 는. 동. 경. 대. 판. 신. 호. 부. 리. 세. 질. 것. 을. 더. 거. 정. 하. 다. 일. 본. 내. 각. 이. 하. 로. 스. 블. 네. 비. 식. 같. 아. 도. 일. 본. 근. 본. 정. 척. 즉. 아. 서. 아. 용. 치. 급. 침. 약. 을. 실. 현. 할. 근. 수. 품. 이. 렴. 진. 히. 서. 오. 속. 허. 황. 스. 량. 제. 파. 정. 명. 동. 을. 생. 낸. 이. 다. 모. 스. 크. 가. 합. 락. 되. 면. 구. 라. 파. 에. 정. 복. 당. 한. 국. 민. 은. 또. 랑. 말. 할. 것. 이. 오. 모. 스. 크. 가. 파. 두. 하. 여. 기. 며. 덕. 국. 을. 대. 항. 하. 면. 히. 들. 리. 는. 소. 련. 대. 전. 에. 인. 명. 급. 무. 귀. 대. 손. 실. 을. 당. 하. 야. 영. 본. 토. 침. 입. 을. 풍. 상. 만. 하. 게. 될. 리. 이. 다. 모. 스. 크. 합. 락. 에. 미. 국. 이. 구. 전. 참. 가. 할. 는. 가. 일. 본. 이. 소. 련. 을. 침. 격. 할. 는. 가. 미. 국. 참. 정. 에. 일. 본. 은. 동. 맹. 조. 약. 대. 도. 대. 미. 선. 정. 할. 는. 가. 모. 스. 크. 전. 정. 에. 미. 일. 의. 연. 결. 참. 정. 형. 세. 가. 급. 박. 하. 여. 간. 다.

와 히 아 와 새 고

와. 히. 아. 와. 기. 독. 교. 회. 는. 김. 처. 연. 목. 소. 를. 회. 영. 후. 에. 본. 보. 의. 서. 1. 반. 기. 독. 교. 인. 가. 지. 치. 김. 처. 연. 서. 에. 개. 열. 로. 하. 전. 신. 으. 로. 환. 영. 하. 노. 라. 와. 히. 아. 와. 는. 호. 향. 다. 음. 갈. 만. 한. 습. 요. 노. 시. 마. 스. 크. 필. 관.

영. 에. 서. 사. 업. 하. 는. 다. 수. 동. 포. 가. 와. 히. 아. 와. 에. 서. 가. 명. 을. 일. 우. 이. 살. 아. 서. 한. 인. 계. 미. 국. 사. 민. 들. 을. 위. 향. 하. 야. 사. 교. 회. 도. 활. 동. 을. 사. 업. 이. 만. 도. 다.

김. 복. 소. 는. 동. 서. 화. 문. 이. 공. 부. 동. 영. 생. 의. 라. 뉴. 욕. 서. 총. 교. 사. 업. 에. 관. 호. 경. 험. 을. 가. 저. 서. 사. 교. 상. 으. 로. 로. 년. 급. 청. 년. 교. 우. 를. 지. 도. 함. 에. 자. 격. 이. 상. 당. 하. 야. 와. 히. 아. 와. 교. 회. 가. 서. 의. 비. 리. 성. 의. 직. 봉. 사. 로. 진. 보. 화. 장. 되. 기. 를. 기. 대. 하. 노. 라.

와. 히. 아. 는. 동. 서. 대. 륙. 과. 2. 천. 마. 일. 상. 거. 가. 되. 야. 새. 일. 관. 을. 마. 지. 게. 사. 역. 하. 리. 래. 포. 하. 는. 이. 의. 심. 리. 화. 동. 1. 하. 다. 우. 리. 의. 시. 세. 인. 군. 을. 회. 영. 할. 때. 깃. 분. 을. 에. 가. 삼. 이. 두. 근. 두. 근. 함. 은. 아. 모. 조. 록. 그. 가. 와. 서. 로. 소. 교. 우. 들. 과. 합. 동. 회. 서. 아. 조. 총. 선. 본. 련. 본. 정. 협. 시. 살. 히. 갈. 가. 함. 이. 오. 하. 의. 이. 로. 오. 는. 교. 의. 자. 역. 시. 성. 소. 한. 곳. 에. 와. 서. 1. 반. 의. 기. 대. 하. 는. 사. 업. 을. 잘. 밧. 들. 어. 감. 으. 로. 사. 업. 성. 취. 에. 공. 격. 을. 영. 터. 며. 케. 세. 철. 새. 함. 을. 늘. 상. 할. 것. 이. 다.

와. 히. 아. 사. 교. 회. 봉. 사. 일. 군. 이. 죽. 면. 하. 는. 사. 처. 은. 벌. 달. 다. 서. 근. 관. 한. 것. 불. 소. 하. 니. 교. 회. 들. 창. 설. 유. 지. 하. 는. 이. 는. 다. 로. 년. 들. 이. 오. 다. 수. 천. 년. 은. 개. 인. 유. 의. 의. 리. 과. 지. 심. 으. 로. 공. 인.

두 평양주보

이. 박. 약. 으. 로. 사. 교. 회. 의. 실. 비. 부. 족. 함. 을. 탄. 심. 하. 며. 자. 말. 덕. 으. 로. 개. 량. 진. 보. 함. 에. 는. 불. 질. 직. 회. 성. 이. 지. 다. 그. 러. 나. 하. 와. 이. 한. 인. 사. 교. 회. 장. 래. 가. 청. 년. 들. 에. 개. 입. 으. 로. 그. 들. 지. 도. 하. 며. 단. 결. 함. 에. 로. 년. 급. 청. 년. 간. 의. 사. 불. 함. 함. 이. 업. 지. 안. 을. 것. 이. 다.

그. 러. 나. 어. 느. 사. 회. 든. 지. 개. 량. 진. 보. 함. 에. 혁. 명. 보. 다. 개. 혁. 의. 방. 도. 가. 압. 장. 서. 야. 심. 구. 상. 용. 이. 업. 시. 은. 연. 용. 시. 대. 환. 괴. 를. 맞. 추. 어. 발. 전. 을. 수. 있. 슬. 것. 이. 니. 아. 모. 리. 고. 상. 호. 회. 화. 을. 배. 워. 서. 실. 현. 실. 현. 함. 에. 시. 대. 와. 행. 련. 에. 맞. 지. 안. 으. 면. 오. 히. 러. 불. 화. 만. 생. 기. 게. 될. 것. 이. 다. 그. 림. 으. 로. 세. 모. 오. 는. 일. 군. 이. 사. 교. 회. 들. 아. 조. 뒤. 집. 어. 노. 처. 안. 교. 사. 회. 제. 도. 를. 한. 두. 가. 지. 식. 개. 혁. 함. 에. 1. 반. 은. 인. 단. 하. 며. 서. 모. 협. 조. 하. 여. 야. 부. 손. 사. 업. 이. 든. 지. 성. 공. 할. 수. 있. 더.

김. 처. 연. 목. 소. 는. 와. 히. 아. 와. 급. 근. 방. 교. 우. 를. 위. 향. 하. 야. 봉. 사. 키. 로. 래. 포. 하. 였. 스. 때. 1. 반. 한. 인. 은. 그. 들. 협. 조. 하. 야. 우. 리. 의. 사. 업. 이. 일. 취. 함. 장. 함. 으. 로. 김. 복. 소. 의. 사. 명. 이. 성. 공. 되. 기. 를. 바. 라. 노. 라.

련합사업에 축하

련합사업추진회사는 조직된지 수년만에 사업이 흥왕하여 키크릿상점을 신축하고 영업범위를 확장전보하니 한편으로는 련합사업 당사자제에게 하례하며 그의 절영하는 온갖사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노라 한인의 각종 사업이 들며 진보되어야 한인사회가 그만큼 늘어갈수 있는고로 본보는 한인상사에 고를 권장하며 한인의 사업 성취를 기회 있는 대로 축하하는 배와 본보가 한인사업 화상에 대하여 축하하며 혹은 그것을 비소하여 광고나 여드닌싸 음어세운다 하지만은 실상 그는 우리가 경쟁으로 한번누자를 대표하여 중심적하는 성의를 니증이라 한인언론기관으로 한인사업진취를 찬성치안으면 누가 할리오 우리사교회며가 개한인의 잘되어 가는 것이 본보의 소원이오 전민족의 기대하는 배라 단해나 개인성공을 공축함에 엇지소할 한편심을 품으리오

우리의 한인들이 근년에 부흥산을 만히작만하야 시민

三 三년동안안향전

「이글은옥클린드 추리본 씨 L데이잡지편에 게재된문헌인데 지금중정에 특파피자로있는 피취씨의 기사와 씨을우리 독립운동사정에 주된한편찰이 잇을뿐 아니라 후리운동에 동정하는 친구중에 하나이며 씨의 소문에 참고할 것이 잇습으로 이에 번역한다」 신한민보

함정독과 쓰지 에이 피취

일본의 중국침략의 제 1보는 1895년 일본군사가 한반도남쪽해 북쪽 반도조선에서 지나군사를 격파한 때에 시작하였다
조선은 중심으로 일본이 점령의 속리는 일본으로 하여금원동에서 대륙주의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이일청정전 이후 조선은 잠시동안 독립을 누렸으나 1905년 포스마스 조약에인하여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합병되었다

권리는 없지만은 락쓰를 나서 정부경상비를 지금중에 당국의 보호를받을 권리가 재재하다 한인중에 유권자 수효가 상당하여 장차 10년동안전 10년비례로 부흥산을 사며 각종상업업을 한두가지씩 버려노으면 재포한 인장태가 유망할려이다

실지상업상경험이 많은인사들이 사업을 몇몇간경성출결과로 상업을신축하고 사업을확장함에 한번인사는 그들의 상사성공을위하야 축하하는 동시에 만사대기를 다조막축하하노라

○ 하와이 인구증가

1914년 하와이 각국인 인구총계는 여좌하니 하와이에 1,424,640 로인 혼종 52,445 포도리칸 8,460 빈인 1,411,627 중국인 29,237 일인 1,591,534 한국인 6,881 필립핀 52,600 기타 849 합 4,665,339 인이다

작년동과 대비하면 로인은 감소, 빈인 3만 5천명, 한국인은 비례로 증가 되었고 한인은 2,616 인이 증가 되었다

그러나 이아름다운 장산에서사는 조선사람은 인습적쇄국정척이 조선을피멸의 길로 인도할것을 깨달았으며 쓰지금까지 자유를위하야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조선사람들은 조선사람은 금일구주의덴막, 노웨이벤지임 허란, 불타서사람들이 피재복자로 노예의 생활을하는 데서 덕정복되지는안었다 보래자유로 살는 민족으로 자주를열렬히 사모하는 일제가 쏘는조선사람은조선안의 비밀운동과 해외로쫓겨나간 망명객들이 서로 연락하야 장래를명세하고 일본의 패망을괴약하며 모든것을 회상하며 활동중에있다

엇던날 나온 저유명호 조선혁명의회조 김구씨도마부리노찬을받치하였다 그는 지금 64세의 로인이오 1년의력사로는 한때에후유 구한도의 망명소는모험생활로제워있다

일본정부는 여러회동안 김구씨의머리에 거대한상금걸었으나 날이갈수록 조선사람은씨를 존경을뿐만 아니라 씨를잡어주려고 마음먹는이도있다 1932년 상회에서 일인이조선인의 정통을수색할때에 이상하



개도나와 너안하는 김구씨와 다른세본 애국지사에게
우리집에서 한달동안 피신케하는 편의를 들인일이 있
섯다

우리는 그물중에 가장나 이 만흔이로 인자하고는 근
히며 침착한신분이 독립운동의 지도자인줄 몰랐을뿐
안이라 이번일본인의 수색하는목적이나나 만흔지사
를제포하는데 잊었던것도 몰랐다 그중에 한분은이 등
박판을출살한이와 행제되는이도 잊섯다

김구씨가 十九세되는데에 두가지큰 력사적사실이
발싯되엇스니 첫째로대한국 황후씨서 일본정부의자
객제지다에세 암살을당함일이오 둘째로는 지나간
八九四—一八九五년간 일천전쟁에 비참한제도 일본
에제패한것이다

당시조선이나 지나는 이일천전쟁의 결과로인하여
비상한충동을 맞은때에 김구씨는성각하기를 조선파
지나가합작하여 일본을대항하는것이 유일의 방도라
고성각하였스나 당시대한정부는 이와반대로 일본에
저항하는길을 취하지안엇다 그리고민성에게 명령하

한국황제폐하씨서는 축하축사를 너려 김구씨의사형
선언을거우시고 다만三년근고에 처하라하엿다

당시조선에는 귀독교의세력이 점점커지는 동시에
대자유사상을 가진대다수는 귀독교인이엇다 이시대
의사상파 또김구씨부친벌세는김구씨로하여금 一八
세세에귀독교인이 되게하엿스며 그후닐니쿠년에편
당하며다수의 학교를설립하며 국가봉사와 독립사상
선전에로력하엿다

이 청년지사가 대중의 환영을 받은것을보면 일본인
은시기가야 었던날저녁 김구씨가여러 사람앞에서연
설문시에 색를제포하엿다 법정에서는 김구씨를한중
근외이동종감 암살사전 공범으로몰아 재판하얏스나
증거불충분으로 다만정제하여 처벌하엿을뿐이오 그
이듬해에일오러 일본이정식으로 조선을 합병하엿다
일본이조선에대하여 령토의독유권을얻었다는 조약을
세트리고 조선을합병하며 닐니지니를 헌관하여두으
고고압행은수가만흐니 이리할사록 김구씨는나라를
외향하여활동하는데 一층의자극을 받았었다 그래서그는

외평양주보

야에대부중하는표로 머리를쓰고그하엿다
이때전국을통하여 격렬한여론이 일어났다는 소식
을들은김씨는 다른애국동지 안항근씨에게 혁신단체
를조직하여 이라약혼정부를 전부또 중벌로게회를제
의하엿스나 안씨는진실한 귀독교신자의립정으로 김
구씨의계회에 찬성치안엇다

때맞침남조선 지방에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은김씨는 남쑈기를향하고 너러갔다 도중에주하포를
지날뒤에 자객쓰지다가 그곳에잇을을 발견하고즉시
형치하고교살한후에 갖가유변상에 쓰지다를죽인뒤
유를쓰고 자기의주소와 성명을남긴후에 의연히남
쑈기로너러갔다

조선안에일본의세력이 점점 강하야지는 동시에
에잇는일본공사는 김구씨의사형을 요구하엿스며 일
본의압박을 의지못하는 조선정부는 두말후에김구
씨의사형을 선언하엿다 그러나김구씨의 애국적행동
은사방에서칭송이 자자한데 그의사형선고는 지전파
가치흔들어 一반의언론은 비상히놀라섯다 이세에대

곳서울노을나와 리동명, 안창호씨등의 도움을얻으며
민회를조직하얏다 그동료중 안창호씨는 가장유명하
고존경을받은 조선지도자가되엇다

一九三二년에 조선사람들이 안전하다고잇는 상허
법조계를 일본인들이 수색할때에 왕이라하는사림을잡
으라는제포정을받하엿다 일인정판들이 왕의 집을차
저가스나 왕이입습으로 왕을안으로 고쳐가지고비밀
적으로 안창호씨를 잡아갔다 이사건은우리가네본조
선사람을우리집에서 피신케한후 성진일이다

一년에국지사들을 검속하는중에 김구씨도 구속되
여신민회는 허산을당하엿스며 이도인하여 이번에는
二년에선고를받았스나 출옥하기도 전에총독 암살미
수사건에관련되야 十五년간 김옥생활의 심고를다시
받앗다

이장기의심고도 일본의명치황제가죽고 대정황제
기작위할시에 一관청처벌에대할 대사를 넘어다만五
년간만 부역하고 출옥하엿다 미안

七

신문기자초빙

○국제협회는날노유리하고
○한국독립운동이 일어나

음경의세보

「본보신」작일은한국의망국제三十一주년전날제
년이다중국에있는한국립시정부주석김구선생이광
복군총사령리청전장군파의교부장조소암선생등과
갓치독하여예저년六시에국인생화원에서음경에있
는중의신문기자들초대하는석상대김주석으로부러
한국말노식사를진술하였고빈약한면아래의것이다「한
신공국의배뜻대까지찾고우리가바라는것은중국정
부는영국이구주에유망정부를대접하는거와갓치천
절후부식파애호를주고아울러널리반천약진선에소
개하여국제주의를닐이키는것이다 다음에말하기를
「이번에거행하는망국제三十一치의참혹한기념은
특수운동의두집을짓초야가졌스니」파기한국독
립운동에종사하는十五개단체는일찍이길을남호아

죽는정신을가지고와서나라를위하여죽는장거는노
패할만하고울안도울일이타하고아울러한국립수들
이계속분투하여성공의까지도달할것을권면할공시
우리정부와민족적이한국광복운동에대하여만흔원
조를주어손총의희소약국부여주장을부합하기를바
란다고하였다 동八시까지민주까지를올라하고사회
하였다

한국립시정부당국은본년국제기념일전날저녁에
신문기자초대회를열었다 그목적은현금중국정부
의한국광복전쟁실수인준비시기에있서널리선전
하여각계층을환기하여야한다 파연음경중의각
신문기자가함응하여성황을일우었다 이일을지난
후음경각실관은모다초대의기사를제정하였고이
상기사는익세보대게재된것이다 우리광복군의중
모성적은광호하고중국외향신문은싸움사육터감
한다 「립시정부비서국발」

나감으로력량을집중처 못하드니 죽금은十三단체가
동일을실현하였고 기타두단체도 최근에새호-치립
동대참가하겠다고하니 이것이 확실히 것만허상이오
二, 두스벨트, 저철이 선언을 발표호호로부러 국제협
세가날노 우리독립운동 전도에유리로 나감이이영에
비할것이안이다 이두점이잇스니 우리로호야금三十
一주년참봉은기념에 대하여비호대입는흥분을누기
재하는것이다」

그다음의교부장조소암선생과 광복군총사령리청
전장군이간과보고할것을참모총장리법석장군이런
의하여현명분투경파의최근미국을향하여六항의요
구를진술하였고 최후본보총사우빈주보로부러 당사
를진술한대이는아래의것이다「한국독립파복운동은우
리가동정할만한길잇치가잇고 더욱더민주립장에서서
보면대개현주는바에와정의를가져 피압박민족의회
방운동에대하여 당연히최초호것을비상호합리평
으로입증한다」 그리고현주신도안규군이이동박문을
저격하는정렬호사적을가져말하기를도회를위하여

중국실과는불능

도남씨글에서

서기판

一, 일본은중국을실패시키불능하다 일본이다
문곳에서는성공한다고할지라도중국정부에는실패
될수밖에없다 사실인즉일본이세사변에걸어들어갈
사로중국최후승전만을부지송당보호미된다

一九三七년七月七일에일본이중국을침입하면서
三개월동안이면너히정복하리라 선언하고씩그대
로잇었다 그러나어연간四년이란시일이흘렀다 그런
데도중국인은시종이여일하게항거한다 일인들이씨
씨로잇은것처럼싸호의성공호리라는자신회망은두
지안는다

중국군인파병성은용맹있게항거기불능하다든일
병을막아냄으로그면예가쳐기되고그무명자를가운
데는웨이입인가하는의문이선정다 일병은중국서실
패보찾다는인중이업시싸져나오거나정령저방을개
척성공하거나평화를일몰길이업다

중국 안에서 일병이 가는 곳마다 중국인 항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관군이 마는가의 유병에 제 손실된 일본 부력은 엄청나게 크건만 일인들은 모르는 것처럼 항쟁을 다수 일전정은 허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시켜서 세 차례 일전전선선이었고 일인들이 활동하는 전선선 후 좌우로 흘러나가는 피는 연철서가 없다.

일인들은 중국과 중국인을 단말히도 리해치 못하면 서 싸움을 시작했다. 일인들은 터셔도 잘못일 거스려나와 중국인이란 연제나 미지근하거니하는 것운성가를 가지고 서달동안이면 너너히 승전곡을 날릴 줄도 믿었다. 일인들은 몇달 중국이 행복하는 것으로 의화를 면하야 하도록 지금 그러하야 승전을 속히 할 줄 믿었다. 쓰지금은 영미에서 간섭을 제대로 못을 것까지도 예상했다. 중화민국이 전설된 후로 민중심리가 변질된 것도 무시했다. 너란드로 들어림지 안였는가. 그것은 전쟁이 다그래도 일인들은 청조황실이 들어 전후로 개혁에서 가싸기 이어서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첫째되는 실수이며 외국에서도 잘못

一九三八年말에 미국고환이 끝나가매 일본인관계에서는 여출-구로 중국패망을 예언까지 지켰다. 그러나 중국의 승리한 성적이 더 들어났스니. 피이 할일이 라 않을 수 없다. 이리케 참된 중국군대가 조직되어야 할 것을 일본서를 타본 것이 불재실수이다.

세사재로는 중국서력사적 습관에서 말되쳐 못후리라고 믿은 것이 더 큰 실수이다. 일인들은 중국을 분열시켜온 경험만으로 중국인이 정치상으로 단결된다는 것을 냉소하고 신생활운동들은 유아의 작란 감에서 지나지 못하거니 할 생각이 있다. 피인

월페이 六百원수

一九四二년도련합월페이 자금五十七萬五千원용모는 일의 만액 되었으며 한인부는 본래五百원을 정액하바 한인월페이 수봉위원장 리허생씨는 六百원수봉에 대하야 말하기를 우리가 금년에 작년보다 거의 갑절이나 증수할 것은 한번 출연제씨가 성실지도아 준결과 피위월제씨의 열심수봉공포의이다. 이번 월페이 자금

판단은 바이다. 모도가 공교하게도 민족과 화해할 여은에 국성이 라면가 합동력이 라면가 본투의 정선등을 보지 못하였다. 일본서는 중국이 전정을 쓰려나 간행선이 나리구가 정령고 일난출생개이도란다. 대체로 론저한 면전정리구가 가장 부족하다. 유국은 공한판 집압으로 十년 동안이나 애타고 쓰정차상으로 도 분열되었다. 일본은 최고도에 당도된 한국 시기가 늦기 전에 그대 특목말을 채용차로 나셨다. 수년만 더 지연하였드면 일본에 제-되는 대륙의 회가 깨어질 행편이었다.

이상마 같은 것을 일본은 믿어 왔다. 일본은 중국이 한으로 공산당과 싸호면서 판군당성에 더 전력할 것은 모르고 되셨다. 저네들은 일본이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장사상에서 덕인들에게 혼련을 받았었다. 제-차 세계대전 때로 된 덕국정판들이 중국군인단이 되어 신식군인술을 중국인에게 가르쳐 주었다. 덕인들은 무과 타던가 정정전행법보다도 군인조직과 군인기본 책임을 잘실하기 르쳐 주었다. 정정방식은 중국인차작인 재중에 덕국고관거국영향을 빌드받지 않았다.

성직은 한인사회에 만호성광이 났습니다. 수봉위원의 수합은 액수는 여좌하니

- 황해수, 정월리 - 1百六十五원七十五전
- 김루이사, 미메리 - 1百四十七원
- 안정중, 리릴리 - 1百四十四원七十五전
- 권도인씨부인 - 황에미 1百廿二원五十전
- 출금인원 1百六十九인의 재로 六百원을 수합하였다

조선문제 강연회

- 연사 아펜셀라 박사
 - 시일 十月二十五日(토요일) 하오 七시 반
 - 장소 밀너거리 국민총회관
- 최근 조국의 사정을 못하고져 알고저하는 간절함을 이우리 일반 동포형제자매의 가슴에 넘치고 사모치는 것은 이루디 형용할 수 없습니다. 허풀며이 보다덕 진정할 수 업는 이시국에 있어서 이리오 아펜셀라 박사는 최근 에우리나라 서울을 다녀이 곳에 와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야 만흔일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환영하나 이



다 박스는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잘았으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뒤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선친의 고마
운 뜻을 따라 우리 민족의 교육계에 헌신하고 一九一七
년도로부터 二一년 동안에 수만의 청년자녀를 교육
시키는 한편에 종교와 일반 문화운동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음은 다시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한번 동포의 잘
아시는 바이라 박스희 우리나라 민족과 사회에 대한 지
식평정함이 언더톤의 국 선파사들보다 풍부하며 특히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잘 알고 소
는 점으로도 동박스를 우리는 한층 더 경애함으로 이에
강연회를 열고 한번 동포와 함께 환영의 뜻을 삼가 표하
며 박사의 조국문제에 대한 온층을 연구와 열정의 변론
을 서로 다져서 놓고 연구하고 저와도 조국의 최근사
정을 알기 원하는 여러분은 이 조흔 기회를 일차 말으시
고 정각전에 만히 오시기를 삼가 바라나이다
대한민국 二十三年 十月二十日
저미한 독립위원회의 사위원장 티원순

동경나지지는 문설하되 미국에대일하도가 일본
의분토를 아치로만 처감화되어서 불의사변이 언제발
생될지란 축이랴
퍼린은 군정설립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영미합작
반대를불개하고 동맹기처하에서 신시대도 점진하는
동맹국가의 세력이 증진한다 하였다
의심은답국은 신너가의정선언을 커다리는 중립
국하의 유익한상의원 노리스씨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
를과를 두마못하는 것처럼 일본파와타협한다 일본이
미국을치라면 칠라이다 일본은의이는편에 서타못드
라고커다리는 중이라
패피상의원은말하되 우리가아조금울그이노르일
본파상중하며 그금울넘으면 방충을것을 정계하자하
였다
그외에각부성은 중앙영태하는 선박에방충하야 천선
국항구에들어서라하고 뒤평양 위키가 금박을것처럼
취관류전대의 응급대령을것을 포고하였다 그럼으로
마닐라에서발견한 선박몇척은 다회정하였다

평양주보

도조의출마

일본고노에너가이며 일국교조정 실패와 총일정전
미결총사죄하고 그뒤에류군대인 도조가군정부너
가을조직해가지고 十月十八일부터 출봉하였다
의상은소련특파이론 도피며 그외에五人은 유익하
였고 도조총리는류, 대, 너부대신을검임하였다
도조는 오래되오로 저칙을방충하바 일본은너정의처
에평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총일정을 속히조정하고신
동아공영체를 실현한다 하였다
도조는일본의소위 평동정명 대장이오 만주사부국
총지라 군벌파도그리파격지는안오나 그가류군대신
파너부대신을 검임하여서 부술리니 두계를 단행할것
이다
○군벌파너가에대호어론
총공서발행하는 중국신문계는 평하기를 도조가소
련정약을주장하는 파격파라 새너각은화약고 넘세를
맞았다

본들은일본을 정계하야 도조너가이 전란을원동해
파급하면성, 미가합작대항하리라 소련공상은 벌받는
전정이라 하였다
시마나히군대신은 十月二十일에 연설하기를 류, 히
군파관민이합작하면 일본회관은 부순사변이든지 당
할수잇노라 하였다

소련에 주일대사도잇는 신임의상 도조는 총일정을
속히조정하라고 애를쓴다
유미우리신들은 말하기를 미국이영국의 간교계척파
장개석호소매 장단밋추어 총추는상을깨고나서 대일
반동을페지하면 뒤평양평화를 유지할수 잇다 하였다

익관은모스크서 마일

본은十月二十一일... 군사정판가는 말하기를 十九
일모스크공습에 뒤군은 五十마일상거에잇는데 익관
평습을반어하라면 되몬셀코부하는 거대호 군사들집
중하야 선의근수잇다 하였다
모스크에 주재호 련국대공사판은 다른곳으로 피란

하엿으며 정부는 모스크에서 약四百마일 샅거되는 디 방에이전하엿다 모스크는 직군정령을 방비하기로부 니 하유아는 다 피란갓고 국민자위단은 령사언정 마즈 마사람까지 항전하기로 결심하엿다

스켈린은 군사령부를 무장기차로 옮겨노코 친히 항 디전을지휘한다

모스크형세가 매우절박히셔 시민은 성외에디함을파 노앗으며 직군공동임자 군사외벌세갓치 드리덜뒤는 직계화군대를 유맹스리히막아된다

소련이모스크 함락으로인하야 항전정신이 락락될가 바영, 미는우러하며 군수품용달 함토를일고제호구 소련외제-요구는 중랭크,장거리대포와 폭격비디 타전조는히노코 운송하랴호주 소련북방은 통절로피

헛고 이란국경총파음송이 다음이나 그디방역시겨울 노인하야 운송이곤란하다 서베리아가 세스지윤송로 라소련은 이를세드리는 기선을포럼사디근방에 두어 서미국의 군수품항로를 개척하겟노라하며 포럼사디 근방에항구 두곳을개통하엿다

히틀러가 모스크를 점령하되도 소련은국민의병으로 침략군을 대항올리인고로 밀경에는 히틀러가 자퇴 할수갓게입다하드다

세계에론에 영국이 무손리유로 구라파에 원정대를 보니서도읍지안 나하드 영국이 원정대 二十만명을 뽑국히안지방에 보니라면 三百만은 선박요구가되며

군사전문가 예산에의하면 한사람군사출전에 시민九十三명이 전시소용불화용달에일을하야야된다 하엿다

버린보도에 직군은모스크를 三면포위로 공격하야 금할말에 그도성이 함락되리라하고 전면명경에소련 군六十六만인을 포로하엿고 一百五十만 병력이전멸 되엿노라하하디라

미국구축함습격

와성촌十月二十一日... 미국진구축함키니호는 아이스 린근방에서 습격되야 자력으로모항구에 도착하엿는 데선원十一명은 침위불명하고 十명은부상 되엿다

히군성은 구축함습격이 올림입는미국 침수함이라

하엿고 만민사회는 대서양에 미국장함명 함함에미덕 중을필것을 넘어하디

二百만인선륙비

희한비협상채 병원,수선소,기계설비를二百九十一 만원에발역하야 十二일-일부러 들재된다 하디

도조배각단명을언

삼히에잇는 일본육군장관의 관측에는 도조너각이 몇달뒤로 총사직할것을 실명하엿는때 그리유는도조 가소련과 미국과타협하는제하면서 시일을달어셔그 동안에일본이 서베리아 공격을준비하며 영,미,유합 四개국의 일본포위형세를 완화하가지고 일본의필수 원료품을 도독코저하디라

가신보도에 일본이 미국의 소련격멸을 바라서만약 아,미,유전이된다면 히틀러는 포럼사디파만, 아,국경 간두작을하제하야 일본으로 피음노코 남양관도를침 뽁노히 미국으로피평양전란의 정신을못차리도록만 들의가지고 미국의 대서양에서 독장철의산이라하디

도조는너가를 또변동하야서 군벌파가 더세력을잡 아가지고미, 디작전의회를리유하야 서베리아를습격 할러이라하디

소련이원동에 주둔중군사를 서편에미전하야서도 조가륙대까지 걸림하야가지고 수상권리 이외에륙전 계획을자립 처단할러이라하며 아,미,전란이오래스려 가며 미국의대일 정책이불변하면 도조는수사너로볼 니안올러이라하엿다

시망

○본항배고한씨는 十月十八일에 별세하야 당일하오 에안장하엿는데 씨는당년六十九세이며

인사소식

○본항신처준씨는 수일전에 사역라가 융상되야 쿤인 병원에입원 치료중이라하며

한치료라가 포치나리병영 병원으로 이전하였더라
 ○서정일씨부인환향
 본항서정일씨부인은 불리호 시귀애귀공후야 도라
 을귀약이망연후야 무전히애를쓰다가 상회로 가서선
 편을잇디 수일전에 환향후야 한번천우들은 부한것비
 가더라

평신도회

본교의인원회의 요구에의하여본월廿六일(주일)에
 배후유시 평신도회를열고 인원회의 결의사항및가지
 조건을결정하겠습니다 한번 형제자매께서 동참하
 십시오

一九四一年十月十八日 호항디방교독교회

평신도회 회장 김광지 근교

광고

본디방동지회 년대대인동상회를 금월廿六일 하오
 二시에신촌극어 학교에서 소정하오니 한번회합하

세한분도생지파시키고 제히래참하시와 명년도강
 부일원개선의덕후야 성심껏 령정하시와 사업진행에
 구애업시순성순심을 간절히바라나이다

호상감의

천상을당후와 애용망극중 선천의원근 천우제씨제
 부고들뜻전후를 죄송합니다 정태에여러분 어문씨서
 와 친구들씨서뜻과 부의금을보내셔서 호상조의를표
 하시와 제재사래뜻고 고 평양주보들용후야 감사를
 드리오니 판서하십시오

민국二十三年十月一十一日 최용성부인 전아나라

가족 一동

부인구제회의무금

호항

민부일 二원 박두집 二원 김열시 二원
 손봉안 二원 리봉은 二원

독립금

- 호항
 - 리순연 五.〇〇 김광지 一.二五
 - 김순철 一.二五 정원희 十원 정명일 一.二五
 - 정희원 一.二五 정윤서 一.五〇 김열의 一八원
 - 안현경 五.〇〇 김명옥 三.〇〇 비중식 五.〇〇
 - 김성일 一.二五 정치윤 一.二五 정신실 一.二五
 - 정캐트리 一.二五 박용주 十五원 김영환 五.〇〇
 - 차윤홍 二十원 박래선 一.二五 조억지 二.五〇
 - 리면호 四.〇〇 리명섭 二.五〇 손순환 十원
 - 리일남 五.〇〇 김봉용 二.五〇 손순택 一.二五
 - 김수사나 一.二五 김영수 十원 홍영수 二.五〇
 - 최리진 一.二五 손창희 一.二五 인영조 五.〇〇
 - 리정호 五.〇〇 인옥사 五.〇〇 현상화 十원
 - 와히아와
 - 림성우 十원 김춘성 十원 유영한 五.〇〇
 - 모로가이
 - 가혹구 리종환 十五원
 - 하나
 - 최자일 十원 장한조 五.〇〇

진평양주보

○밖나이

- 정봉환 一.二五 리윤택 一.二五
- 염치선 一.二五 정현철 一.二五 하명섭 一.二五
- 조희나 〇.五〇 최주선 三.〇〇 리순도 二.五〇
- 한창교 二.五〇 송국환 一.二五 김명수 一.二五
- 조신근 一.二五 최지섭 一.二五 양귀홍 一.二五
- 리선의 一.二五 리시화 一.二五 리유의 一.二五
- 박춘식 一.二五 안시택 一.二五 전수경 一.二五
- 김성수 一.二五 김원섭 一.二五 권익서 一.二五
- 전숙자 一.二五 김복순 一.二五 리상옥 一.二五
- 박미리 一.二五 서금서 一.二五 리창선 一.二五
- 류근업 一.二五 신봉순 一.二五 김인규 五.〇〇
- 림사국 四.〇〇 리철연 二.二五 리정근 二.〇〇
- 리경지 二.〇〇 손정심 二.〇〇 김윤창 二.五〇
- 리희원 一.五〇 박덕순 一.二五 김의석 一.二五
- 구원실 一.二五 원창호 一.二五 장희봉 一.二五
- 김영복 一.二五 황용운 一.二五 리대일 一.二五
- 리근호 一.二五 오근영 一.二五 리선명 一.〇〇
- 한성오 一.〇〇 한치영 一.二五

十七

STATEMENT OF THE OWNERSHIP, MANAGEMENT, CIRCULATION. etc. Required by the Act of Congress of August 24, 1912, of Korean Pacific Weekly, published weekly, at Honolulu, Territory of Hawaii. Territory of Hawaii) City and County of) SS. Honolulu)

Oct. 20, 1941 Before me, a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territory and county Aforesaid, personally appeared Y. K. Kim, who having been duly sworn according to law, deposes and says that he is editor of the Korean Pacific Weekly, and that the following is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and belief, a true statement of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aforesaid publication for the date shown in the above caption, required by the Act of August 24, 1912, embodied in Section 411, Postal Laws and Regulations, printed on the reverse of this form, to wit: The owner and publisher, Dong Ji Hoi, an eleemosynary corporation; Editor Y. K. Kim; Business Manager M. W. Lee. That the average number of copies of each issue of this publication sold or distributed, through the mails or otherwise, to paid subscribers During the twelve months preceding the date shown above is 500. Y. K. KIM, Editor.

Sworn to and subscribed before me Oct. 20, 1941. Fred R. Giddings, Notary Public First Judicial Circuit, T. H. My Commission Expires June 30, 1945

청함

十一일 삼일은 본회 제 7회 기념이우바 레식은 2일 주일로 정할 것임이요 명소는 하나우매로 청요함은 본점심은 본회에서 공급할 터이오나 썬스비만 50점 식에 비키로 선포함오니 한번회우계서는 물론이오방 청제셔도 참석코저하시면 몇칠전까지야 카비로보너 읍소서

썬스는 파라마성공회임해서 타게되오니 그날아침 8시에래참함읍소서 부인호상회 회장 우도경 서커 리애스다

심산

본항 량저용씨 누부는 十月二十일에 목남호연는 데 산모산아는 一해 건감호야 조부담홍업씨의 외조부디 호씨는 매우깃비하더라

○○○○○○ 카네순뜻사시오

본인이코코헛에 十七에키를 리스호야 五에키이상 은과경호야 농사를곳을슈잇으며 한에키이상은 카네 순을심어서 담상뜻을써다 매일파는데 다른사업상관 계로 카네순뜻을범가에 팔것습니다 리스리한은 十八년이남았스며 리스세금은 매에키 에매년四十원씩이올시다 뜻받은 하와이에 나 양로원 근방이온데 자동치공원에 원리호며 채소식물이 귀호 데 농사모리아는 사람은된돈집을 귀회기잇은속 며불 의호시기를원하시면 자세히회답호겟습니다

호양 박신부 7六九五三 26953

MRS. SHIN POK PARK 3649 Niipahi St. — Tel. 76953 Honolulu

뒤 평양주보

○○○○○○ 간장발매

본회사에서 제조한간장은 우리한국과 귀국동양간 국이사용하는 원료곡물과 그양조식을 채용호야제조 하는공시에 가우정부와 타성시청위성국 감독하에서 정밀히양조함으로 찬간장의 진미를가진 물품이되다 정애종모는 만흔주관을주시면 절대인용을 죄허물진 을배달호겟나이다

○극상품 깨근론자리내병든... 一상자 四원七十五전 ○중품 깨근론장리내병든... 一상자 四원二十五전 대금은선금과 씨오디로호호며 라도에는 윤송비를 사가시논이가 담담호재되나이다 주부원 김종립 고백

C. L. KIM 805 E. 1st Street : Phone Michigan 7983 Los Angeles, California

UNITED PRINTING CO.

640 S. Beretania St. — Phone 2834

General Commercial Printing, Book Binding and News Publications

Our printing facilities include a linotype and an automatic rapid-fire cylinder press.

한인연하회인쇄소

인쇄물에 관한것은 영문이나 국문이나 다 이리로 가져오시오 염가로공급 하리다

강영각 주무 九八一四

고광식물전방

본식물전방에는 각종식물, 채소, 과일이 구비되어 있으며 반종포는 애고추시오 물전은 조코 신선할것을 취력 하여 칠하게 피웁니다

호랑 메리라니아 아우라코다 三三九호
황룡의 식물전방 언화 六八二八

Y. Y. WHANG
329 BERETANIA STREET
Honolulu, T. H.

고광전축과 수리

본인이 새 집 전축급 수리와 실하는 것을 도급으로 하오니 지구간에 고충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동포에게는 염가로 장화를 이겠습니다
틸리하 一二二五호 릴북매
언화 六七〇二二

고광하와이 마블비석회사

본회사는 수 십년 동안을 호항에서 비석만 드는 사업에 특별한 정력이 만혼회사라 한인들이 비석을 만들려고 자물쇠에 동지회호상부 수부원에게 특별히 시면비석에 대한 일을 설명하게 된것을 기쁘게 하오니 한인에게 특별 염가로 하여 드리겠습니다

○비석에 조각하는 국한판을 대평양주보사에서 써드리겠습니다
가피오라니 대로 七七四호
하와이 마블 비석회사 주부원 핑크

고광(플인씨)판

본려판은 광활하여 거처에 편리하고며 공리가 인성 7야위성에 적합하며 항구출항에 잇으니 상업상에 편리하며 더 유복자들은 늘 잇고 의사들 잘 주선하여 신속 수용하여 드립니다

플인씨 러판주인 김서울 빈
一一四九 꽃거리 언화 六八三五九

고광강의사오외쇼고

사무소는 三六號 三二四우동
사무소 언화 五一九八
사저 언화 九三九〇四
의화바스 감영부

시탕시베

한문 三三五
한문 七〇五

돈시복

언화 一〇〇원
미화 廿四元 十銭

대평양주보

二一



태평양주보사

매주 토요일 발행
 사무소: ... 북킹-스추릿 九三一호
 우함: ... 一五七三 전화: ... 八九八四九

대금

주필 김영희 一〇
 편집 一〇
 발송 四〇〇
 주소를 변경하면 즉시
 본사로 통지하시오
 저무 一〇
 김영우

▲ 주의하시오 ▼ 봉지 회송할부 사무소 고된

▲ 기사나 회에 관계한 서류는
 중앙부장 송승윤씨의게로

▲ 책을 청구하나 정지하나 취에 관계된 것파
 ▲ 각항공전과 주보대금을 제투

▲ 태평양주보사의게로 보내시옵
 영문은 꼭이대로 쓰시오 M. W. LEE

리원순사무소

베리타니거리 五〇五 센츨볼프너
 (양유찬 의사부소전니편이올사다)
 사무소는 三三三二〇
 사저에는 八九三九三
 전화

와싱톤의교부반의

DR. SYNGMAN RHEE
 1766 Hobart Street, N. W.
 Washington, D. C.
 Cable: Korea

KOREAN CHRISTIAN INSTITUTE

2134 Halma St., Honolulu

기독교

전화 八九三九三

KOREAN CHRISTIAN CHURCH

1822 Iihaha St., Honolulu

호항한인교회

전화 八八七五五

광 (식물상점) 고

본인의상점에 동서양 각종식물과 술이구비함으로
 다수종모든 의과호신 하함니다

리원순 신물상점주 원복순

리원하거리 一一一一화

원방언화 八七六九二

사저언화 八八二九三三

LILHA SUPPLY & LIQUOR STORE

1211 Iihaha St., Honolulu Tel. 87692-882923

광 고

본인이 다른사업을경영함과 호렐거리 一四六호에
 잇는저공침전방을 방매코저함음는데 한인의게는 후
 별업가르방매켓습니다

각종의부파 저봉기구가 구비함니다

호렐거리 一四六호 재봉점 주인 주. 에루. 품백

태평양주보사

광 동양패문상점

본점에 각종 패물이구비함으로 각종패물을 소한데
 로계조도항머 사가기에 편리키워야 의상으로도
 매듭니다

리원순, 엘진, 불노라 각종시계와 각종
 구피들의 구비함으로 좌저는 킹거리 스릿코너

Corner King & Smith St. Phone 2973

Canton Jewelry Co.

CREDIT JEWELER

광 건록과수리

본인이건축과수리며 철하는것을 한인에게는 럼가
 로잘히드일라이니 누구시든지 가대와 가구수리를한
 의하시오 플담과 키크리도함니다

북스쿨스추릿 五四九 정인식
 전화 八八七九二

특고

본호상부에 관한아는 무삼의돈이나 호상에대호것
 은호상부 주주원배인진서씨로서신으로던지 언화로
 먼지죽점판의호심시요 그레야표이성 색르고 신속한
 리이오니 주의 호심시오 전화 八八七九二

● 보드위그장례소 四,五일 四,一년

본 장례소는 한인 천주교에 재속가토장의 법절을 보아
드러서 수 십년에 고상심을 감수합니다
그림으로 동지회 호상부는 본장의 소와 상약하고
- 반 호상부원의 장례물 특별림가에 정하여 들임니
다 이는 호상부원 뿐만 아니라 한인에게 재는 원
근을 골라 고공손하고 다정하게 봉사하려 의의다

보드 위그 장례소

누아누 一五六二호

던화 五六五八

Borthwick Undertaking Co.

Distinguished Service Through the Years

1562 Nuuanu St., Honolulu

Telephone 5658



연합상업주식회사

오래동안 사업을 경영하여 모든 본회사는 상정을남김
거리 一三七〇호에 새로건축하고 사업을 十月二十日
요일부터 개업하였수오니 누구시든지 만히애고하시
기를바랍니다

○영업과부

자동차, 아이스냉기스, 전기와 가스화덕, 프레드오, 와
성미신, 그라전과동축을 사고팔며맞고기도합니다

연합상업주식회사 소유

유나이티드 모토쓰

사장 리원순 총무 김성구
전화 九六四六五

UNITED COMMERCIAL CORP., Ltd.

DBA—United Motors

1370 S. King St. Phone 96465
Honolulu, T. H.

에래디오기구상회

一九四
二六

김블피아노—미국에 유명한 피아노상회와 특약하고
하와이 전매권을가짐으로 상품피아노를 칠호장
스트로판매함

합포입—화동, 아이스냉기스, 와성미신, 워리히터를
하와이안 전기회사의 특약하고 전기회사에서 판매

하수정공을 동인출찌비스트 판매함

에래디오—모양이아름답고 음조가 높음기로 유명한
필코에래디오와 미국에메—크고오래된알. 씨. 에이
에래디오를 판매합니다 一九四二년 세스타일이만
이찾스며, 트사캐린의로 판매합니다

동포고객에게 친절정영상계 봉사함으며 씨비스트도신
속하게하여드리겟스니 시합함소서

에래디오 기구상회
남페르나리아 五十五號

○사무실 전화 二五四四
○판매부 전화 三九一一

RADIO APPLIANCE CO., LTD.

50 So. Beretania St., Honolulu
Phone 2544 - 3921